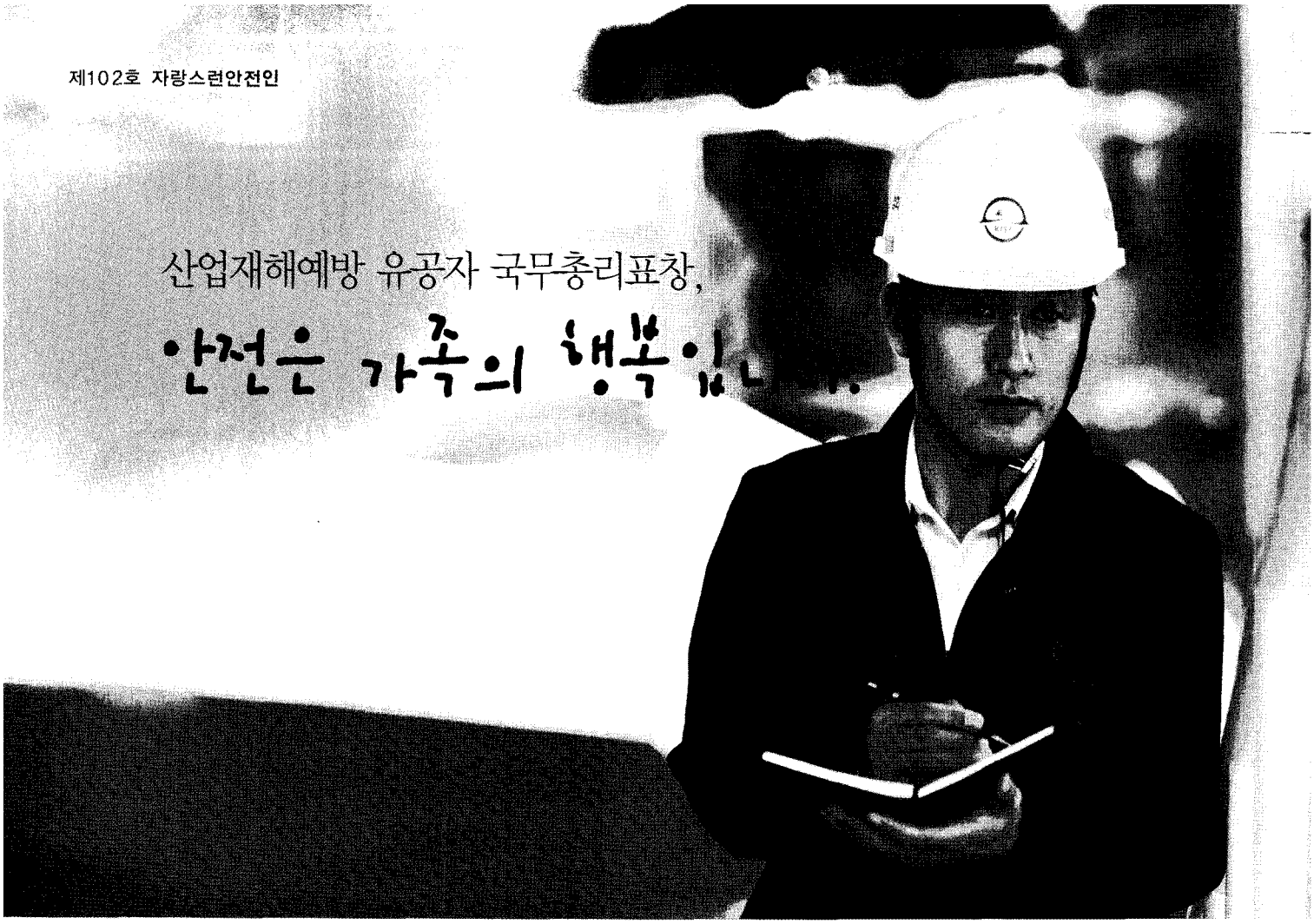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안전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지난 7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최대 행사인 제4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이 서울 코엑스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인들에게는 1년에 1회 개최되는 축제의 장이자 새롭게 안전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산업재해예방에 공이 큰 안전보건인에 대한 포상, 지난 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감소를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자리, 오늘 만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최원양 차장은 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개인은 물론 협회에게도 큰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최 원 양**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전문가

올해로 마흔 두 살의 최원양 안전관리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안전컨설턴트로 16년째 일하고 있다. 안전을 전공하고 처음에는 일반 제조업에서 안전업무와 관리업무를 맡아 보았는데, 당시 위험작업이 많았던 탓에 한 달에도 여러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다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안전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에 입사하게 되어 안전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컨설턴트가 되었다. 다른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지적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고, 때로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 그렇게 안전에 있어서 전문가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그는 그의 인생 절반 가까이 안전과 함께 해 왔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안전은 언제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일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하게 된다.

타협할 수 없는 일, 안전

안전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는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놓는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

가야 하는 가장의 일이야말로 숭고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더 없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한 일도 있겠지만 그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작은 타협은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슬픔을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실제 경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이다. 간혹 이런 것은 넘어가도 좋지 않으냐는 기업의 안전 담당자를 만날 때, 난처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항상 그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가능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준다. 그런 설득을 위해 그는 안전을 위한 더 많은 지식 습득과 많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안전불감증 타파, 어렵지만 넘어야 할 산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재해율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안전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다보니 자연스레 안전에 대해 관심도가 높지 않다. 예전보다야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몸에 배어 있는 근로자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가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위험기계기구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작업방법에 대한 표준화 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문제다. 영세한 기업에서 방호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당장 근로자의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한데 안전시설에 투자할 만큼 여력이 없는 것,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문제는 타 지역에서보다 더 절실한 이곳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기업 담당자와 만나 안전교육 일정을 잡고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다. 특히나 신규채용자의 경우 작업방법이 서툴러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규채용자 교육은 반드시 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갈 수 있었고, 근로자들이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에서 조금씩 벗어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근로자는 나의 가족,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터

여전히 중소기업은 인원부족, 생산납기일, 노 · 사갈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 때까지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생산력 증대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그로 인한 고통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 기업, 국가 등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관리감독자들의 역할이 크다. 그가 안전교육 시 되도록 생산을 총괄하는 공장장이나 대표이사까지도 참여시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안전은 누구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도 규범도 아닌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가야할 기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앞으로 안전관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가 담당하는 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